

PHOTO ESSAY

사진산책



강남 일출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인간은 본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생의 많은 순간에 외로움이라는 파도와 마주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분투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이어가려 하는 것도 결국 고립감을 밀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삶의 국면이 바뀌고 관계의 밀도가 벌어지는 시기가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과 역할에 기대어 맺어온 관계는 그 일과 역할이 벌어지는 순간 예전처럼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때로 사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야 사람의 부재를 견딜 힘을 얻는다.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다시 사람이 아니라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 마음의 좌표를 찍어둘 장소 하나쯤 마련해두는 것이다. 거창한 안식처가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도피처이자 편안한 휴식의 영역이면 충분하다.

단골 카페나 도서관, 미술관, 헬스장, 익숙한 산책길 같은 곳 말이다. 그곳에선 낯선 이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물리적인 허전함은 느껴지지 않으며 굳이 누군가와 말을 섞을 의무도 없다. 그런 '자기만의 공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자리에 머물며 나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흘러보낼 때 외로움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감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대개 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견디고 다스리는 힘은 결국 자신 안에서 길러야 한다. 타인에게 나의 외로움을 맡기지 않고 나를 보듬어줄 공간 하나를 곁에 두는 것. 익숙한 풍경과 적당한 소음이 흐르는 그곳에 머물다 보면 외로움은 더는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할 수 있는 감정이 된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하는 것은 외로움 없는 삶이 아니라 외로움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인지도 모른다.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아홉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